

“고향사랑 기부금법 제정하라”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국회서 성명발표

황인홍 무주군수(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부회장)가 26일 국회를 방문했다. 이날 방문은 고향사랑 기부금법 조속 제정 촉구를 위한 것으로 홍성열 증평군수(회장)와 김석환 홍성군수(감사), 김돈곤 정양군수(사무총장) 등과 함께 경대수 의원을 만나 환담 후 국회의원과 정문관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도·농 간 재정격차 해소와 세수확충을 위한 농어촌지역 활성화에 대해 국회에 계류 중인 고향사랑 기부금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고향사랑 기부금법이 지방재정의 건전화와 지방분권의 촉진, 균형 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이외에도 고향사랑 기부금제도를 도입해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각종복지사업과 정주여건 개선 등에 고향세를 사용하면서 인구증가 및 농촌경제 활성화를

이론 일본의 사례가 담긴 성명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제근 위원장과 문희상 국회의장,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게 전달됐다.

이 자리에서 황인홍 무주군수(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부회장)는 “저출산·고령화의 그늘이 날로 짙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과 같은 방식만으로는 지역경제 위기를 넘어설 수 없으며 우리 수준의 지방소멸이 건 현실화될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는 더 이상 이 상황을 외면하지 말고 고향사랑 기부금법 통과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도시민이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자체에 일정금액을 기부하고 세금을 감면 받는 제도(일정 금액 이상 기부자에게 지역특산품이 담례품으로 제공)로, 도입 시 지역 농·특산물 판매가 촉진돼 전국적으로 약 3,947억 원의 세수가 증가(2017년

전북연구원 분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고향세 도입은 2007년 12월 대선 공약으로 발표되면서 논의가 시작됐으며 2009년 유성엽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13명이 관련법 개정안 4건을 발의했지만 중앙정부와 수도권 반발로 무산됐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간 14개의 고향세 관련 법률 제·개정안이 발의됐고 현재 국회 심사 대기 중이다.

한편,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전국 73개 지자체)는 전국 농어촌 발전을 도모하고 경쟁력을 강화시켜 우리나라 농업 기반을 다진다는 취지에서 2012년 출범한 단체로, 그동안 농어촌지역의 재정 확보와 농업문제에 관한 정책 포럼 개최, 농어촌현안을 건의하는 등의 노력을 펼치며 농어촌이 안고 있는 공동문제를 함께 풀어 가는 정책 파트너로서 입지를 굳혀 나가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 외사양마을이 농촌관광 거점마을로 탈바꿈되어 본격적인 관광객 유치에 나선다.

진안 ‘외사양마을’ 농촌관광 거점마을 변신

‘마이산 에코타운’ 개소

진안 외사양마을이 농촌관광 거점마을로 탈바꿈되어 본격적인 관광객 유치에 나선다.

군은 26일 외사양마을에서 내빈과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외사양마을의 ‘마이산 에코타운’ 개소식을 가졌다.

외사양마을은 2015년 전라북도 농촌관광 거점마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됐다. 지난해 12월 건축허가 사용승인을 받고 개소식을 갖게 됐다.

신비의 영상 마이산을 향해 진안을 소재지 방향으로 뻗은 아트막한 구릉지 아래 자리 잡은 외사양마을은 가장 근거리에서 마이산을 볼 수 있는 경관이 수려한 마을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이곳에 자리한 마이산 에코타운은 마이산을 찾는 관광객이나 학생, 직장인들을 겨냥해 조성된 다목적센터다. 총사업비 30억 원을 투입해 대지면적 3,585㎡, 연면적 780.68㎡의 지상2층 다목적동 1동, 숙박동 6동으로 약 60여 명이 체류할 수 있는 숙박과 체험시설, 식당, 세미나실, 카페 등을 고루 갖추고 있다.

군은 외사양마을 마이산 에코타운이 문을 열면서 향후 차별화된 농촌관광 콘텐츠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했다.

외사양마을을 박덕만 위원장은 “마이산 에코타운을 통해 마이산을 거쳐 가는 곳이 아닌 체류하는 곳으로 변화시키고, 주변관광지와 연계한 농촌관광 거점마을로 자리매김하도록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매아리

장수, 성공귀농 행복귀어 박람회 참가

장수군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19 성공귀농 행복귀어 박람회’에 참가해 지역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고 26일 밝혔다.

국민일보 주최로 지난 21부터 23일까지 행사에는 담당 공무원과 귀농귀촌센터 관계자 등 6명이 참여해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지역 귀농귀촌 여건, 각종 지원사업, 우수정착사례, 주요 작목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했다.

특히, 귀농귀촌센터에서는 귀농 경험 공유를 통해 귀농귀촌 대상지 선택 고려사항, 귀농귀촌 준비 시 애로사항 등 특화된 노하우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

장수군 관계자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만큼 인구 늘리기를 위해 귀농·귀촌 박람회와 도시민 유치 프로그램에 동참하고 있다”며 “농촌지역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진안 군민안전보험 가입 완료

최대 1500만원까지 보상

진안군이 전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 가입을 완료하고 각종 재난·재해 시 군민안전 지키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군민안전보험은 진안군 전 군민과 주소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를 밟지 않아도 누구나 혜택을 볼 수 있다.

각종 재해와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들이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대 1500만원을 보상하며, 상해 후유장애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주요 보장내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익사사고 사망, 의료사고 법률지원, 농기계 사고 및 후유장애 등 총 14종이다.

군민안전보험의 모든 보장내용은 타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며 타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 군민안전보험을 통해 화재사고로 목숨을 잃은 유가족이 약 1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예정이었다.

안병용 안전재난과장은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불의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장수군은 2018년도 내·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자·배당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오는 4월 1일까지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란 내국법인 및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지급하고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법인세의 10%를 법인지방소득

세로 특별징수하여 신고·납부한 자를 말한다.

제출된 특별징수명세서는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시 기납부한 세액으로 공제할 때 검증자료로 활용된다.

제출 방법은 위택스를 통해 전자과일로 제출하거나 특별징수의무자의 소재지 자치단체에 직접 방문해 저장매체(CD, USB)또는 서면으로 제출

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공지사항을 참조하거나 군 세무과 세입징수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특별징수명세서를 정확히 작성·제출해야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시, 법인 납세자에 대한 환급 및 자치단체 간 업무가 원활히 진행되는 만큼 기일 내에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장수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자체사업 발대식

장수군은 26일 한누리리당 산대관에서 장영수 장수군수, 장수군의회 김종문 의장,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자체사업 발대식을 진행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장수시니어클럽의 노인일자리 사업 설명과 함께 교

통문화연수원 최수진 감사의 소양교육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장영수 군수는 “양질의 노인일자리 제공으로 어르신들이 사회활동 참여가 확대되면서 보다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장수군은 노인일자리 탈락 어르신 746명에 대해 올해 자체예산 18억을 추가 편성하고 5개월 동안 공익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한다.

/장수=고판호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